

〈번역논문〉

당 후기 번진과 주의 관계*

邢晨**

당 후기부터 북송 초기에 이르는 동안 번진과 주의 역할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즉 번진이 점차 약해지고 주가 점차 강해진 것이다. 안사의 난 후 번진이 내지에 보편적으로 설치되고, 하북 번진의 발호가 다른 번진에게 파급되었으며, 憲宗 元和 시기에 번진을 평정하여 그 영토를 분할하고, 황소의 난 이후 번진 위에 강대한 번진이 출현하였으며, 또 五代에 번진 숫자가 급증하여 관할 지역이 격감하였다. 이는 번진이 强에서 弱으로 변화한 과정이다. 이와 동시에 屬州는 번진의 통제를 받으면서도 조정과 通達하고, 兩稅가 三分되고, 자사에게 軍權을 귀속시키고, 戶口가 증가하고, 주의 등급이 높아지고, 오대에 直屬州가 증가한 결과 북송 시기에 전면적으로 주가 조정에 직속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주가 약에서 강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번진이 쇠약해지고 속주가 강성해진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이는 당 후기에 시작하여 오대를 거쳐 북송에 이르러 완전히 바뀜으로써 속주가 번진의 통제를 벗어나 조정에 직접 예속하게 된 것이다.

* 이 글은 張達志, 『唐代後期藩鎮與州之關係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1의 결론(229~231쪽)을 번역한 것이다.

** 東國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課程

본서는 모든 면을 빈틈없이 살펴본 것이 아니다. 본서의 목적은 당 후기 변진과 주의 관계 발전 과정과, 또 이를 조정이 지방을 통제하여 지방과 조정이 서로 소통하는 환경 하에 둔 것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본서는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1) 행정 방면으로는 조정이 속주와의 直達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변진 분할과 [藩帥] 이동 등의 수단을 통해 변진을 약화시켰다. (2) 군사 방면으로는 '자사에게 군권을 귀속시키는' 개혁을 통해 속주의 병력을 증강시켰다. (3) 경제 방면으로는 '兩稅三分制'의 시행 및 개혁을 통해 속주의 財力を 제고하였다. 마지막으로 6주 자사를 지낸 孫公義의 묘지와 기타 사료로 그러한 사실을 검증하였다.

변진 관하의 州는 治州와 屬州로 나누어진다.¹⁾ 치주는 使府가 위치한 곳으로 그 자사는 항상 절도사·관찰사가 겸직하고 州의 등급과 지위, 호구, 주둔 병사 등에서 다른 속주에 비해 크게 우위에 있었다. 치주 이외에는 모두 속주이다. 만약 변진이 조정과 항쟁하는 경우는 속주를 힘써 장악하려고 노력하여 많은 경우 그 사부의 僚佐와 軍將에게 속주 자사를 겸하게 하였다. 만약 조정이 변진 권력을 삭감하려고 하면 州와의 上通·下達을 촉진하고²⁾ 직접 속주 자사를 제수하였다. 조정은 언제나 그와 변진·주 사이에 권력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속주와 조정의 상통·하달은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있고 또한 때때로 거듭 천명되었으며, 속주와 변진의 연계는 엄격히 제한되었다.

변진의 군사적 측면을 보면 藩帥가 군사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던 국면이 변하였다. 변수의 사망이나 교체로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 병력이

1) [역자주] 사료에서 치주는 使府, 속주는 支郡 또는 巡屬이라고 한다. 日野開三郎, 『支那中世の軍閥』(『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 1, 三一書房, 1980), 49쪽 참조.

2) [역자주] 鄭炳俊, 「唐後半期の地方行政體系について -特に州の直達·直下を中心として」, 『東洋史研究』 51-3, 1992; 張達志, 「唐代後期藩鎮與州之關係新解」, 『學術月刊』 2010-1 등.

점차 여러 군장들에게 분산되고 서로 견제하게 되어 이전에 비해 절도사가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병력이 점차 줄어들었다. 병사를 여러 군장들에게 나누어 예속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각 군장이 거느린 병력이 서로 분산되어 시간이 지나면 객관적으로 변진의 군사력을 약화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병력의 약화는 황소의 난 이후 전국적 범위의 변진 병력 분산화와 州軍 독립화의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정의 입장에서 州軍은 지방의 치안을 안정시키고 국지적 반란을 평정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변수의 무력 남용을 견제하고 변진과 주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 현종 원화 시기의 “자사에게 군권을 귀속시킨” 개혁³⁾은 무형 중에 변수의 권력을 나누고 변진 병력을 약화시켜 이후의 변진 분할과 五代의 州 권력 강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현종대의 개혁은 변진 내부의 병력 구조를 본질적으로 바꾸어 변진 발호의 군사적 기반이 점차 약화되었다.

당 후기 변진의 운영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변진의 분할이다. 변진이 분할되면 될수록 관하 주 숫자가 적어지고 면적이 좁아졌다. 변진이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하나의 치주가 더 생겨났기 때문에 원래의 속주가 새로운 치주로 바뀌어 지위가 크게 높아졌다. 동시에 변진이 분할되면 신설 변진이 거느린 속주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변진에 비해 州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높아졌다. 따라서 변진의 분할은 치주든 속주든 지위가 상승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치주와 속주의 역할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주의 실력이 향상되었다. 변진 관하 치주의 이

3) [역자주] 日野開三郎, 『支那中世の軍閥』, 137~139쪽; 同, 「憲宗の振朝抑藩策による地方鎮防力の弱體化」,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 19, 三一書房, 1996, 129~131쪽; 누노메 조후·구리하라 마쓰오 저, 임대희 역, 『중국의 역사(수당오대)』, 혜안, 2001, 290~292쪽; 구리하라 마쓰오, 「안사의 난과 변진 체제의 전개」, 임대희 외 역, 『세미나 수당오대사』, 서경, 2005, 325~326쪽 등.

전으로 기존의 치주가 속주로 강등되는 것은 단기간에 주 등급의 강등, 호구 감소, 財賦 부족을 유발하지 않는 반면, 원래 실력이 비슷한 속주가 치주로 승격되면 단기간에 실력이 비약적으로 올라가고 심지어는 기존의 치주를 능가하기도 하였다. 주의 등급에 대해 보면 많은 주가 치주로 승격된 후 등급이 높아졌다. 그 외에 당 후기 특히 唐末에 관찰사구가 잇달아 절도사구로 승격되면서⁴⁾ 각 번진 간의 지위 차이가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나 관찰사의 격상에 수반하여 속주의 지위가 높아지고 발전하면서 전국적으로 주의 총체적 실력이 눈에 띄게 커졌다. 북송 태종 때 전국 모든 주를 조정에 직속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오대 수십 년 동안에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 후기 주의 실력과 지위가 계속 높아지지 않고 또 번진에 대해 절대적으로 종속적이고 절대적으로 약세였던 주의 지위가 점차 바뀌지 않았다면 주의 독립적 발전 공간과 역사 무대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당 후기 150여 년의 역사 특히 조정이 반역 번진을 징벌할 때와 당 말 난세기에 지방의 세금이 조정과 번진에게 단절되지 않고 제공되어 강한 병력과 양식·마초 공급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번진과 주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다. 양세법이 시행된 후 주는 지방의 가장 기본적인 세금징수 단위이고 조세 징수는 자사의 치적평가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으며, 藩帥의 징세 감독 또한 재원을 안정시키고 조정의 신임을 얻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조정이 州와의 직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조치인 ‘양세삼분제’가 시행되었는데, 즉 州의 조세를 上供(중앙에게 바치는 것)과 送使(절도사에게 보내는 것)와 留州(州에서 남기는

4) [역자주] 節度使와 都團練使는 군정을 관장하고 觀察使는 민정을 관장하였다. 당 시 번진은 군정과 민정이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이 두 관직을 겸임하였다. 단 절도사는 그 지위가 관찰사보다 높았고, 관찰사는 도단련사보다 높았다. 따라서 이들 관명을 함께 적을 때는 절도·관찰사, 혹은 관찰·도단련사라고 하고, 하나의 관명만을 적을 때는 절도사 또는 관찰사라고 하였다(정병준, 「李正己 一家 이후의 山東 藩鎮 -順地化 過程」, 『대의문물교류연구』 3, 2004, 129쪽).

것) 셋으로 나누어 경제적으로 州에게 큰 자주권을 부여한 것이다. 특히 현종 때 ‘양세삼분제’ 개혁은 변진의 留使錢을 치주 범위 이내로 한정하고, 또 법령으로 조세 이외의 추가 징수를 금지시킴으로써 속주의 경제적 독립성을 크게 강화하였다.⁵⁾ ‘양세삼분제’는 시행 초기부터 唐末까지 조정과 변진이 모두 강력하게 추진한 제도였는데, 특히 조정의 군사 동원과 황소의 난 이후에는 財賦 납주를 더욱 중시하였고 財源인 속주의 경제적 지위 상승으로 주의 총체적 지위가 더욱 높아졌다.

손공예 墓誌⁶⁾는 당 후기 속주 자사의 임관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는 澤·吉·饒·睦·亳·廬 6州 자사를 역임하고, 昭義·江西·浙西·宣武·淮南 5개 변진을 옮기며 다스렸다. 그의 묘지는 변진과 속주 관계의 여러 측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前文의 논술을 더욱 보충할 수 있었다. 더욱이 조정·변진과 속주의 행정관계 및 호구증가와 자사 考課 관련 등에 관한 내용은 조정 정책 및 변진과 주의 행정·군사·경제 관계를 두루 관통하고 있다. 손공예는 주로 武宗 會昌 연간(841~846)에 관직생활을 하였으므로 현종 원화 시기(806~820)의 제도 개혁으로부터 20여 년이 지났지만, 그의 행적은 원화 시기 정책의 집행과 영향을 관찰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자료이다.

5) [역자주] 日野開三郎, 『支那中世の軍閥』, 140~141쪽; 同, 『藩鎮時代の州稅三分制について』,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 4, 三一書房, 1982, 276~281쪽; 누노메 조후·구리하라 마쓰오 저, 임대희 역, 『중국의 역사(수당오대)』, 289~290쪽; 구리하라 마쓰오, 「안사의 난과 변진 체제의 전개」, 323~325쪽 등.

6) 周紹良 主編, 『唐代墓誌彙編(下)』, 上海古籍出版社, 1992의 大中 054, 「唐故銀青光祿大夫·工部尚書致仕·上柱國·樂安縣開國男·食邑五百戶孫(公父)府君墓誌銘」, 2289~2291쪽.

